

고흥 ‘맞춤형 교통복지 4종세트’ 호응 좋네

100원 택시·장애인 콜택시·수요응답 마을버스·천원버스
시장·병원·목욕탕 등 이용자 늘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

고흥군이 ‘맞춤형 교통복지 시책 4종 세트’를 선보여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관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농어촌버스에 단 일요금을 적용하는 ‘천원버스’를 운행해 군민의 교통비 절감효과는 물론 지역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천원버스는 기존 기본요금 12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고 4000원을 부담했던 구간요금제를 없애고,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은 500

원만 내면 되는 교통 복지 사업이다.

천원버스 운행 이후 그동안 승객이 없어 적자를 면치 못했던 관내 농어촌버스에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승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시장과 병원,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군민이 늘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사업도 운영중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1대로 운행한 장애인 콜택시를 2대 추가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고흥군은 또 지난 2015년부터 군내버스 운행횟수가 적고,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마을 군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100원 택시를 운영해 지역민들의 교통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100원 택시는 대상마을 주민 중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며, 매월 3매씩 배부한 이용권과 함께 100원만 지급하면 정해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소요비용은 고흥군이 지원한다.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시책으로 자리잡은 100원 택시사업은 현재 11개 읍면 27개 마을 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고흥군은 또 100원 택시운영에 이어 기존 대중교통 체계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이나, 승강장이 멀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관내 11개 읍면 87개 마을을 북부권과 남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하고 있다.

버스운행은 지역 실정을 반영해 읍면별 장날 및 공중목욕장 운영의 날에 맞춰 마을회관부터 읍면소재지까지 구간을 왕복 운행하고 있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고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원버스 운행사업 등 교통복지시책들이 우리나라 미래 농어촌 교통행정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을 없애고 군민들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종기자 gjuj@



섬진강기차마을로 포켓몬고 잡으러 가자

게임 ‘성지’ 부상 발길 북적

증강현실(AR)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Pokemon GO)’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에 자주 출몰하면서 포켓몬고 성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곡성군은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에 포켓몬고 게임과 관광을 동시에 즐기려는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는 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포켓스톱’이 구 곡성역, 음악분수, 장미공원 인근 등 7곳이나 있다.

또 포켓몬을 이용해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체육관’도 2곳이나 있어 군 단위에서 보기 드문 ‘포세권(포켓몬과 역사권을 조화한 신조어)’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희귀 포켓몬 중 하나인 ‘잠만보’가 발견되고 ‘이브이’가 대량 서식하는 등 가장 강력한 포켓몬 중 하나인 ‘사미드’로 진화하는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에서 게임을 즐기다 발생할 수 있는 차량·보행자 사고 우려도 없는 등 게임 만족도도 높다.

/곡성=김계종기자 kkim@

고흥군 저출산 극복

출산·양육 지원 확대

고흥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시책을 확대 시행한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될 임신 출산 시책은 ▲7종의 출산용품 지급 ▲관내병원 초음파 검사비 8회 지원 ▲유축기 대여 ▲3자녀 이상 가정 다자녀우대증을 발급을 통한 관내 공공기관 감면 혜택 등이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 지원하고,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고흥군은 앞으로 모든 직원 대상으로 응모한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를 다양한 시책에 접목해 나가면서 군민 인식개선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고흥군 출산장려 및 신생아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임신부의 분만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같은 지원으로 고흥군의 2016년 기준 관내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32명이 늘어 출생아 증가비율이 전남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주각종기자 gjuj@



고사리손으로 수확한 겨울딸기

고품질 친환경 딸기로 유명한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 원동마을 내 딸기 하우스에서 외할아버지집을 방문한 손자·손녀들이 딸기수확을 돕고 있다. 원동마을 딸기 하우스는 친환경 재배로 당도가 높아 농산물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곡성군 토란으로 초콜릿·쿠키 만든다 업체 4곳과 가공식품 개발

‘흙 속의 보물’ 토란으로 만든 초콜릿·쿠키가 출시된다.

토란 최대 주산지인 전남 곡성군이 토란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는 등 ‘곡성토란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토란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해 고소득을 창출하고, 곡성 토란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곡성의 대표 토란 향토

가공업체 4곳 등과 함께 가공시설과 체험관광시설을 구축해 토란대, 토란 전식, 토란 부각, 토란 쿠키, 토란 초콜릿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인다.

토란을 재료로 한 토란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토란 음식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토란빵 굽는 제과점, 토란음료 마시는 커피숍, 토란탕·토란 갈비찜·토란육개장을 먹을 수 있는 고숙도로 휴게소와 식당 등이 곡성 곳곳에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은 지난해 지역토란 재배농가들과 연계해 곡성 토란의 명성을 굳힌다는 목표를 세우고 홍보활동에 매진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kim@

제암산 유아숲서 맘껏 뛰어 놀아요

보성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성군이 ‘2017 제암산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체험·휴양·힐링의 최적지인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7년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유아숲 체험 신청은 이달말까지 사전 신청을 받으며, 유아숲 지도사 자격 취득자 및 산림치유 교육을 이수한

산림교육전문가가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오는 3월부터 11월말까지 9개월에 걸쳐 매주 3~5회씩 운영한다.

주요 체험내용은 숲속에서 유아 감성 끌어내기, 숲 관찰, 숲 치유, 숲속 책읽기, 나무와 대화하기 등 유아가 직접 체험하며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태 중심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유아의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과 숲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복합적인 숲속 체험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군 작년 계약심사로 예산 25억 절감

고흥군은 “지난해 총 449건 814억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19억원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 발주사업에 대해 심사부서에서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한번 더 검증해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고흥군 관계자는 “실적 위주의 심사보다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과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계약심사 사례전파, 정보공유 등을 통해 반복되는 설계오류 방지와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종기자 gjuj@

투자가치 좋습니다 !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번지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팟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지분 / 분할 매매 가능
- 평당 1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나주,전원주택단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건너편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백운동 25분,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전원주택 허가 필
- 전망최고 (나주호 둘레길 공사중)
- 매매 - 평당 8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3년안에 대박 납니다 !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